"공사장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막아라"

평택·광주서 사고 잇따라… 도-유관기관, 특별점검 소방본부 "3000㎡ 이상 건축공사장 화재 관련 조사"

최근 경기도 평택시와 광주광역시 대형 공사장에서 화재와 붕괴 등 에서도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 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.

도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 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수색 에 나섰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했다.

는 광주광역시 주상복합 아파트 신 검'을 실시했다.

축 공사장에서 23층부터 38층까지 콘크리트 외벽 구조물이 붕괴되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제주 작업자 1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연락이 두절됐다.

대형 공사장은 용접 등 화기 취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경기 급이 잦고 위험물이 많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다수의 작업자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 형 인명피해 사고로 번질 수 있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3일 부터 24일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장 또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에 총 27개소에 대한 '동절기 안전점

도는 대한산업안전협회, 건축위 원회 구조위원 등 4개 분야 민간전 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위험물 관 리 실태,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, 개 구부의 방호조치 등 19개 체크리스 트를 바탕으로 점검했다.

이번 점검을 통해 화기 취급 장 소 소화기 미비치, 작업자 안전장 구 미착용, 추락방지 조치 미흡 등 6개소에서 24개 지적사항을 발견했 으며 개선될 때까지 지도·감독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.

제주도 관계자는 "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와 관 련해 제주지역도 12일 특별점검 계 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설 계획" 이라고 말했다.

제주소방도 대형 공사장 사고 예 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 다.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내달 25일 까지 일정으로 관내 공사장 128개 소를 대상으로 '겨울철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점검'을 진행하 던 중 이번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'소방 특별 조사'를 실시키로 했다.

소방본부의 특별조사는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 동으로 3000㎡ 이상 신축 공사장 7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, 특히 5000 ㎡ 이상 신축 공사장 5개소에 대해 서는 이달 말까지 긴급 합동조사를 계획하고 있다.

올해 평준화고 합격선 61.7%

24명 탈락… 작년엔 33명 1지망 배정 비율은 72.3%

2022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입학전 형 결과 24명이 탈락했다. 지난해 33명보다 감소했지만 2020학년도 2 명보다는 여전히 많다.

일부 특정 학교에 대한 '쏠림 현 상'도 여전해 최근 3년간 1지망 배 정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2학년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자와 학교 배정결과를 도교육 청 및 도내 각 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.

평준화고 선발 인원은 총 2770명 으로, 정원 내 2726명(남학생 1367 명, 여학생 1359명), 정원 외 44명 (국가유공자 자녀 6명, 특례입학 대상자 2명. 특수교육대상자 36명)

합격선은 개인석차백분율 61.714 %로 지난해(61.317%)와 비슷하다.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타

도내 중·고교 앞 제한속도 시속 50km

시도 고교로 진학한 학생이 감소한 것이 평준화고 탈락자가 발생한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.

제1지망 학교에 배정된 비율은 72.31%로 전체 2770명 중 2003명이 가장 원하는 학교에 배정됐다. 2지 망에는 522명(18.84%), 3지망 115 명 (4.15%), 4지망 46명 (1.66%), 5지 망 82명(2.96%), 6지망에 2명 (0.07%)이 배정됐다. 특히 남학생 (75.5%) 보다 여학생(69.05%) 1지 망 배정률이 낮았다.

1지망 배정 비율은 2020학년도 74.13%, 2021학년도 72.85%, 2022 학년도 72.31%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

문영봉 교육국장은 "고교체제개 편의 노력으로 읍면고가 고르게 성 장하고 이는 올해 좋은 대입 성과 로 나타났다"면서 "이것이 영향을 미쳐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3학년 상위권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교, 특성화고(과)를 선택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"고 밝혔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

초등학교에 이어 중·고등학교에서 도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된다.

교통안전심의위 속도 조정

제주경찰청은 지난 10일 '2022년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'를 개 최하고 도내 모든 중·고등학교 앞 통학로의 제한속도를 50km 이하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. 지자체와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.

이번 조정은 도내 75개 중·고등 비할 계획이다"고 말했다. 송은범기자

학교 가운데 7개교(중앙고·제주 고·서귀포산업과학고·중문고·서귀 포여중·대정고·대정여고)가 '도시 부 이외 지역'으로 분류돼 '안전속 도 5030'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 뤄진 것이다.

경찰 관계자는 "모든 중·고등학 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협의해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

단독주택 담뱃불 추정 화재

지난 11일 오후 11시58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단독주택 2층 베란다에 서 불이 나 480여만원의 재산피해 가 발생했다. 불은 소방당국에 의 해 10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.

소방당국은 담뱃불 취급 부주의 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. 김도영기자



제주 전력수요 매년 급등세

지난 11일 저녁 최대전력수요 105만5000kW 기록 역대 최대 기록 경신… 최근 8년간 30만㎞ 증가

제주지역 최대 전력 수요가 해마다 (101만2000kW)보다 4만3000kW 나오고 있다.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12일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따 105만5000kW를 기록했다. 이는 지 난해 8월 6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

(4.25%) 많은 것이다.

당시 제주 곳곳에는 눈이 내리면 _ 를 보면 2014년 76만2000kW, 2015년 르면 전날인 11일 오후 6시 제주지 서 추운 날씨를 보였고 이에 난방 역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기 사용이 급증하며 전력수요가 크 2017년 95만5000kW, 2018년 94만 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.

153만7000kW 수준으로, 최대 전력 수요 발생 당시 전력공급 예비력은 48만2000kW, 예비율은 45.7%로 전 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.

그러나 제주지역 최대 전력 수요 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 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어, 향 후에는 전력 부족 사태의 우려도 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

최근 8년간 도내 최대 전력 수요 설명했다. 80만4000kW, 2016년 84만9000kW, 9000kW, 2019년 96만5000kW, 2020년 현재 제주지역 전력 공급 능력은 100만9000kW, 2021년 101만2000kW

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.

이는 인구가 느는 것은 물론 관 광객이 급증하고 전기차도 증가하 는 등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

사진=사진작가 최광호 제공

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예비 전 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

전력거래소 관계자는 "제주와 완 도를 잇는 제3연계선 해저케이블 건설이 완료되면 향후에도 공급에 는 차질이 없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이태윤기자 Ity9456@ihalla.com









좌 임 철

부이 사관

부이사관(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)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(사)제주특별자치도 어 촌 계 장 연 합 회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시 어촌계장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어촌계장연합회



부이 사관



좌임철 (해군 ROTC 19기)

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(부이사관)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제주대학교 해군 ROTC 동우회

회 장 **이 재 은** 외 회원 일동





좌 임 철

부이사관(해양수산국장)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용수리민 일동 용수어촌계 용수청년회 용수부녀회 용수노인회